

기독교 소그룹 성공사례와 원불교 교화단

1. 들어가는 말

II. 원불교 교화단에 대한 이해

1. 원불교 교화단의 이념과 원리
2. 원불교 교화단의 중요성

III. 기독교 소그룹에 대한 접근

1. 기독교 소그룹에 대한 역사성
2. 기독교 소그룹의 의미와 중요성

IV. 기독교 소그룹 운영의 사례

1.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조직
2.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3. 셀 교회 운동

V. 기독교 소그룹을 통해서 본 교화단 활성화의 과제

VI.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 교회 일각에서는 셀을 중심한 소그룹이 미래 교회의 비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셀 교회 운동에 확산을 꾀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대그룹형의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장도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소수의 리더들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다. 또한 성도들의 구석구석에 있는 영적 필요를 그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발견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풍요속의 빈곤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교회사역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많은 인적 자원을 썩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는 소수의 주인과 다수의 객이 존재하게 되어 교회 본연의 본질성 내지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교회성장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교회 본래의 역할과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셀 교회가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조영기 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해 특별강사의 초빙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동원한 대형부흥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교회성장의 첫째 조건은 구역조직임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교회에는 직능별, 은사별, 여러 가지의 소그룹 집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구역조직은 모든 소그룹의 기초이며, 교회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하부구조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역조직은 교회를 건설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이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직임¹⁾을 강조하였었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옥한흠 목사도 구역예배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끝나는 피동적인 방식은 단순히 교인을 관리하는 것 밖에 다른 의미가 없다²⁾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교회성장은 교회의 건물크기와 신도의 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수에 달려 있는데 그런 참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통한 질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잘 키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을 이루시고 일체생령을 구원하여 지상 낙원세계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십인을 한 단으로 구성하는 단 제도를 제정하였다. 그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으로,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드리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다³⁾. 이를 하여 이것은 원불교 교화의 기본 조직이며 원리라 할 수 있는 바로 교화단 법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경우와는 달리 이 십인일단의 단 제도가 시방세계를 가장 빠르게 교화할 방법이요 간이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교화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여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

1) 조영기, 『희망목회 45년』, 209~10쪽.

2)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88쪽.

3) 『대종경』, 서품 6장, 원불교 전서, 원불교정화사, 1977.

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조직교화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화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원불교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연유로 교화단으로 성공한 교화케이스가 세상에 회자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의 소그룹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유형별 사례의 고찰을 통해 원불교 교화단이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과 그 방안의 일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원불교 교화단에 대한 이해

1. 교화단의 이념과 원리

먼저 교화단의 이념에 대해 알아보자. 소태산 대종사는 십인일단의 단 제도를 제정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⁴⁾ 고 하시어 교화단의 훈련을 통한 교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 제2조에서 “본단 기관은 본회 상무기관의 제반 규칙과 교리를 회원에게 훈련하여 회원인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실행케 하며 각 방면의 의견 제출을 장려하여 인도 혁신의 법을 세워 허위와 사실에 구별 없는 인간의 생활로를 개혁하기로 목적함”이라 하여 교화단이 훈련과 의견제출 제도로 교화단의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다. 또한 정산종사도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나니, 주의는 일원주의요, 제도는 공화제도요, 조직은 십인일단의 조직이니라⁵⁾ 하였으며, 또 이단치교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는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 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 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⁶⁾” 하여 십인일단이라는 단 제도를 활용하여 교단통치와 교화 사업을 전개해 가려고 하였다.

대산종사도 원기 48년 대각개교절 경축 법문에서 정산종사의 세계평화 3대요소의 법문을 설하시면서 십인일단의 단 제도는 지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도정법으로 고루 교화 훈련해 내자는 대원만의 교화법인 바 십인이 협력해서 피차의 인격을 완전무결하게 단련하고 십인일심이 되어서 시방세계를 대도정법으로 교화하여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 인류가 십인일단의 단 제도에서 벗어남이 없다면 일체 생령이 법의 품안에 안길 것이요 다 같이 법의 품안에 안기는 날 세계평화는 결코 오고야 말 것이다⁷⁾ 라 하였다. 또한 교단 3대 설계 종합 보고서에서는 교화단 정신이나 공화제 이념 이념으로 볼 때 수위단을 통치 기구로 해야 하며, 교단 통치체제를 이단치교의 단 지도체제로

4) 『대종경』, 서품 5장.

5) 『정산종사법어』, 도운편 22장.

6)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0장.

7) 대산종사의 원기48년 대각개교절 경축 법문 참조.

바꾸어야 함⁸⁾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원불교 교화단의 이념은 이단치교라는 통치와 교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화단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자. 소태산 대종사는 이 십인일단의 단 제도를 제정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하였고, “이 단은 곧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니,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⁹⁾고 하였다. 이 법문을 통해 볼 때, 교화단 조직의 원리는 간이한 조직으로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방에 응하고”, “시방을 대표하고”, “시방을 한 몸에 합한 이치”라 하여 교화단 조직이 단순 조직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에 근거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교화단법이 간이한 조직의 원리를 지니고 있다는 핵심적 의미는 간단하다. 한 사람이 아홉 사람만을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단장이 9명의 단원만을 책임지고 지도해 간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화단 조직을 우주적 관점에서 조직하게 된 것은 교화단 조직의 궁극적 목표가 우주 자연의 도를 실현하는 데 있고 또 우주 안의 일체 생명을 광대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소태산 대종사의 원대한 경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

2. 원불교 교화단의 중요성

일찍이 소태산 대종사는 이 십인일단의 단 제도가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고루 교화할 빠른 방법임을 천명하였다. 정산종사도 이단치교와 관련하여 중앙에서는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고,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 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축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¹¹⁾ 하여 교화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산종사도 대종사께서 일원대도를 천명하시고 교화단으로 전 교도와 전 인류가 서로서로 훈련을 촉진시켜 누구나 활불이 되고 다 같이 불국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물 썰 틈 없는 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¹²⁾고 하시면서 교화단 훈련으로 세계훈련을 시켜 전 인류의 마음을 개조시켜 새 가정, 새 나

8) 원기 73년 교단 3대 설계 종합 보고서 참조. 한편 장응철 교무는 『원광』 57호의 십인조단의 정신이라는 글에서 조단정신을 공부하는 정신, 시방세계를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정신, 일심합력의 정신, 실용의 정신, 책임이행의 정신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9) 『대종경』, 서품 6장.

10) 이성은, 앞의 책, 417쪽 참조. 한편 출가교화단 규정의 <별지1>에 보면 단 관리의 3대(내용.관리.진행) 원리를 밝히고 있다. 내용적 원리로는 기쁨.보람.유익을, 관리적인 원리로는 조직(응집).훈련(개조).활동(구현)을, 진행상의 원리로는 계획.실천.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11)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10장.

12) 『대산종법사법문집 2』, 제7부, 제20회 교역자훈련 해제법설, 1980, 259 쪽 참조.

라, 새 세계, 새 회상을 건설하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산종사는 대종사께서 행정은 없앨 수도 있으나 교화단은 없앨 수 없다고 하시며 교화단을 대단히 강조하시었으니 기관이나 교당에서는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활동을 하여야 한다¹³⁾ 고 밝힘으로써 교화단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좌산 상사는 교화단의 중요성을 더 극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좌산 상사는 교화단은 범신불과 대종사의 자비의 품이요, 만생령 구원의 반야용선이라 전제하면서 교화단은 진리의 품이요 대종사님과 제불제성의 품이요 대자대비의 품이다. 숙겁다생의 업장을 녹이는 용광로요 삼계무명을 밝히는 해명의 원천이다. 교리훈련의 현장이요 교법을 구현하는 일원세계 건설의 현장이요 경륜과 포부를 실현하는 현장이요 시방세계 불국세계의 살림현장이다. 자신과 생명을 구제할 반야용선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¹⁴⁾ 고 하여 교화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산 종법사는 교화단은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조직이다 라고 하시면서 교화단 활동을 강화시켜 교단을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이끌고, 교화단 활동을 심화시켜 수행심과 봉공정신을 크게 장양시키며, 교화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화기로운 교단으로 가꾸어 갈 것¹⁵⁾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종사로부터 현 종법사까지 역대 스승들께서 교화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역대 스승님들께서 교화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원불교 개교이념을 실현하는 하는데 가장 적실한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십인 일단의 교화단 제도는 이단치교라는 교단의 통치 측면뿐만 아니라 우주의 원리에 바탕 해서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교화활동의 핵심 원리이자 방법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III. 기독교 소그룹에 대한 접근

1. 기독교 소그룹에 대한 역사성

1)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

소그룹의 기원은 에덴동산에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고자 했던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⁶⁾. 즉 최초의 소그룹은 아담과 하와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서서 그들을 통해 부부라는 관계성과 가족이라는 관계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관계성을 창조하였다. 더 나아가 가족이라는 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렸고, 그들의 리더쉽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도록 하였다¹⁷⁾. 또한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리더인 모

13) 『대산종사 법어』 자문판, 제5 회상편 45장.

14) 법무실,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 17쪽.

15) 경산 종법사, 「교화단 운영 방침」, 원기92년 9월 18일 법문.

16) 박종훈, 정종현 역, 『열린소그룹 닫힌 소그룹』, 교회성장연구소, 2003, 6쪽.

세에게서 소그룹의 형태를 볼 수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모세에게 혼자서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등으로 사역을 위임하는 소그룹 형태의 리더쉽을 제안하였다¹⁸⁾. 실제로 이러한 소그룹 형태의 리더쉽은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진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2)신약에 나타난 소그룹

신약에서의 소그룹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에 예수는 말씀을 전하며 혹은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 불러 모았다. 그러나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예수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게 되었다. 즉 예수는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훈련시킨 다음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다. 예수는 이 열두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¹⁹⁾. 그 당시 열두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의 특징은 예수가 그룹 구성원들과 일체행동을 같이 하였고, 제자도를 가르치셨으며,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점이다. 이렇게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상호작용을 하였고, 소그룹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자들을 준비시켰던 것이다²⁰⁾. 이렇게 시작된 기독교에서의 소그룹은 사역에 있어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앙적 의미, 더 나아가 기독교적 정체성까지 논할 수 있는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2.기독교 소그룹의 의미와 중요성

1)기독교 소그룹의 의미

일반적으로 그룹이란 상호작용하고, 상호 의존적이며, 개인 자신이 그룹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규정되며, 공동 이해의 문제에 관한 규범들을 공유하고, 맞물리는 역할을 하는 조직 안에 참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룹 보상을 발견하며,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로 정의할 수 있다²¹⁾. 이를 토대로 볼 때 소그룹이란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회원과 소속감, 그리고 공동의 관심과 목적을 위해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집단²²⁾, 또는 리더를 정하고 하나의 공유된 특징과 목적을 갖고 일정한 기간 동안 면대면 상호작용이 있는 3명에서 15명 정도의 개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²³⁾. 한편 조용기 목사는 생명력의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로

17) 안재은, 『소그룹과 교회성장』, 충신대학교 출판부, 2002, 14쪽.

18) 출애굽기 18: 17-22, 참조.

19) 마가복음 3:13-14, 참조.

20)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212쪽.

21) 최대석 역, 『기독교교육연구 시리즈』,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34쪽.

22) 이수민 역, 『그룹 다이내믹스 입문』,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1982, 39-40쪽.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사회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포를 만들고 분열시키기 위한 작은 그룹을 조직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역조직(Home Cell Group)이라 부른다²⁴⁾고 하였다. 이경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구성원은 2-12명 정도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일정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성경말씀을 나눔으로서 진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실하고 긴밀한 교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지도받고, 지도하는 곳으로써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피차 돌보는 공동체적인 구조²⁵⁾라고 주장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기독교 소그룹이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되 구체적인 과업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진 작은 공동체를 말한다.

2)기독교에서 소그룹의 중요성

왜 기독교내에서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최근에는 제자훈련이나 셀 교회운동 등과 같은 소그룹 운동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가? 첫째, 소그룹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 명령을 충실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초 공동체²⁶⁾라는 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지만 동일한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고,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소그룹의 원형 그 자체이기²⁷⁾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소그룹 활동에서 알 수 있듯이 건강한 생명이 있는 소그룹은 반드시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된다는 점이다. 즉 성경을 통해 볼 때 건강한 소그룹의 발전이 교회성장과 교회개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²⁸⁾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그룹이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특별강사를 초청한 집회보다 소그룹 구역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에 나는 복음전도의 성경적 방법은 모든 종류의 특별 강사와 프로그램들로 함께하는 대형부흥집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의 첫째 조건은 구역조직인 것을 체험했다²⁹⁾”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소그룹으로서 구역조직에 대하여 구역조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조직이라고 하면서 리더인 담임목사가 바뀌어도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유기체적인 생명력

23) 심진우, 『교회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13쪽.

24)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209쪽 참조.

25) 이경희, 『소그룹을 통한 교회 사역의 활성화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16-7쪽.

26) 위의 책, 246쪽.

27)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17쪽 참조.

28) 나관호, 『소그룹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세대학교대학원, 2004, 17쪽.

29)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131쪽.

이 있는 작은 교회 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역조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³⁰⁾ 고 주장함으로써 구역 소그룹이 교회성장에 절대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그룹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소그룹이 교회의 리더쉽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에 있어서 리더쉽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거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노동자형 목회를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노동자형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는 오브리 말퍼스 말처럼 ‘많은 평신도들이 실업자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형 목회를 탈피하고 지도자형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해 목회자 자신의 일을 위임시킬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조용기 목사는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를 파트너로 삼고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하며, 구역조직을 통해 목회자의 사역을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³¹⁾ 고 주장한다. 제프리 아놀드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주요 과업이 바로 평신도들을 사역에 헌신하도록 구비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 사역을 통해 평신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³²⁾ 라 하여 소그룹이 평신도 리더쉽 개발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로렌스 쿡은 소그룹 사역을 하는 교회의 성공 여부는 예비 지도자를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³³⁾ 고 함으로써 소그룹을 통한 리더쉽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을 통해야만 작은 목회자들, 즉 평신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교회가 진정 질적 양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는 소그룹이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머리로만 믿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제법 된다고 한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나 영적인 헌신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대개 소그룹에 참여함이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르만은 개인적인 영성을 극복하고 참다운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영향, 상호 섬김, 상호 치유라는 소그룹 사역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³⁴⁾. 이처럼 역동적 소그룹은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헌신된 성도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성도 개개인 의 성장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하려면 최소단위인 구역이나 셀 과 같은 소그룹이 건강해야 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0)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209-210쪽 참조.

31) 조용기, 위의 책, 212쪽 참조.

32) Jeffrey Arnold, Big on Small Group, op. cit., 33-4쪽.

33) Lawrence Khong, op. cit., 54-8쪽 참조.

34) Julie A. Gorman, Community That is Christian: A Handbook on Small Groups(Wheaton: Victor Books, 1993), 57-77쪽 참조.

IV.기독교 소그룹 운영의 사례

본 장에서는 기독교 소그룹 운동 가운데 구역조직과 제자훈련 그리고 셀교회 운동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구역조직

1)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조직

소그룹으로서의 구역조직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그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1958년 최자실 전도사와 자녀 등 5명이 함께하는 소그룹 가정 구역 예배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1년 서대문의 천막교회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장과정을 보면 1958년 단 5명으로 시작해서 그해 150명으로 늘어났고, 1979년 10만명, 1981년에 20만명, 1984년에 40만명, 1985년에 50만명, 1990년에 60만명, 1992년에 70만명에 불과 했으며, 2004년 12월 기준으로 75만의 신도와, 613명의 목사와 전도사, 610명의 해외선교사, 1463명의 장로, 9957명의 권사, 3110명의 안수집사, 8만 4913명의 서리집사, 1만 5천명의 지역장과 구역장을 지닌 최대 규모의 교회로 성장 하였다³⁵⁾. 이와 같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역조직이라는 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럼 여기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성장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구역조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자.

구역조직이란 대그룹이 아닌 소그룹(3-12명정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구성원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으로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그룹³⁶⁾을 말한다. 이 구역은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며 서로 대면하여 접촉할 수 있는 규모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갖는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이 변화와 성장, 발전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공동체³⁷⁾라는 것이다. 조영기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사회속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성도들의 친교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포를 만들고 분열시키기 위한 작은 그룹을 구역조직이라 일컫고 있다³⁸⁾.

2)구역조직의 원리와 기능

구역조직의 원리는 첫째, 거주지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다. 대개 교인들은 서로 그들이 가진 성격과 자라온 배경, 교육의 정도와 사회적 신분이 다르지만 함께 모여

35) 이근미, 앞의 책, 16쪽 참조.

36) 이영춘, 『역동적 구역사역을 통한 한국 교회 침체 극복 방안』,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15쪽.

37) 유헌미, 『교회 구역 소그룹을 통한 목회적 돌봄』,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7쪽.

38)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211쪽.

예배를 보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을 정한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한 교구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누고, 한 구역을 다시 몇 개 반으로 나눈다. 또 한 구역은 5~10 가정 내외가 좋고, 교인의 수로는 2~12명 정도가 좋으며, 한 반은 2~3세대로 구성 한다³⁹⁾. 둘째, 각 구역을 세분화하는 조직이다. 한 구역이 열두 명 이상으로 부흥되면 즉각 구역을 분할 한다는 것이다. 분할 이유는 한 구역장이 12명 이상을 돌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며, 복음전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구역의 인원이 열두 명이 넘으면 비록 새 구역의 인원이 한 두 명일지라도 구역을 분할하고 새 구역은 구역 인원 열두 명을 목표로 세우고 열심히 전도케 하는 것이다⁴⁰⁾. 셋째, 종적 지도체제의 조직이다. 교구는 교역자가 담당하고, 구역은 구역장이 맡는다. 구역전체의 심방은 권찰이 맡고, 반은 반장이 관리하고 조는 조장이 관리한다. 반장과 조장은 권찰과 구역장의 지도를 받고 보고하며 연락한다. 또 구역장은 교구 담당 교역자의 지도를 받고 보고하며 연락한다. 교구 담당 교역자는 당 회장의 지도를 받고 매일 상황을 보고하며 연락하는 조직 체제⁴¹⁾를 지니고 있다.

한편 구역조직의 기능⁴²⁾으로는 첫째, 유기체로 분열 성장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처럼 구역조직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분열을 계속해 감으로써 교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교와 봉사의 기능이 있다. 성도는 몸 된 교회의 지체이기에 서로 깊은 의존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와줄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교역자가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영적인 섬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구역조직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성도들의 실천 도장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봉사 무대⁴³⁾로서 친교와 봉사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역자 보충의 기능이 있다. 목회자 혼자서 설교, 전도, 심방, 상담 등을 다 감당할 수 없으며, 설사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기 교회에서 모세가 장인의 조언에 따라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워 그의 직무를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3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구역조직에 사역의 직무를 일정정도 위임함으로써 목회자의 역량을 보완하고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구역조직의 중요성과 특징>

일반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하나는 목회자가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조직이 없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를 찾아 훈련하여 그들이 일하도록 하는 조직이 있는 교회이다. 전자의 교회는 평신도들이 지도력을 배우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시간을 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39) 박원섭, 『구역운영지침』, 한국문서선교회, 1982, 17쪽.

40) 안 기, 『원불교 교화단 조직과 개신교 구역 조직의 비교 연구』, 원광대학교 원불교학대학원, 1993, 24쪽 참조.

41) 박원섭, 위의 책, 25쪽.

42) 안기, 위의 논문, 26~8쪽 참조.

43) 순복음 교회 연구소, 『작은 목자론』, 서울서적, 1987, 9~10쪽.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에 후자의 교회는 평신도들이 지도력을 배우고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⁴⁴⁾. 이 둘의 차이는 조직이 있고 없음이다. 교회가 선교와 복음을 통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역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일찍이 조영기 목사는 교회성장을 위해 특별강사의 초빙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동원한 대형부흥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교회성장의 첫째 조건은 구역조직임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교회에는 직능별, 은사별, 여러 가지의 소그룹 집단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구역조직은 모든 소그룹의 기초이며, 교회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하부구조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구역조직은 교회를 건설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이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직임⁴⁵⁾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구역조직이 잘 활용됨으로써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성장케 한다⁴⁶⁾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역이 각종 소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경연구와 기도, 토론에 매우 유익하며, 다양한 활동을 주도할 수 있고, 구역은 설교전달에 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성장과 전도와 선교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다.

한편 구역조직의 특징으로는 첫째, 교회공동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기본 조직⁴⁷⁾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큰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대그룹 조직과 회중 예배만으로는 힘들다. 그래서 소그룹으로서의 구역조직이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대그룹 목회와 소그룹 목회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특징을 알아보자. 대그룹 목회에서는 교제 결여, 질문.토의 불가, 소외되는 교인 발생, 협력부족, 적응에 오랜 시간 소요, 목회지침 전달에 장애 등이 발생하는 반면에, 소그룹목회는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며, 질문이 가능해서 말씀 실현에 도움, 개개인에 관심이 가능, 상호격려와 후원으로 교인 간 신앙 성장에 도움, 정착 및 성장이 훨씬 빠름, 목회자의 목회 지침대로 양육이 가능한 점들이 그 특징들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구역조직은 탄력성 내지는 유연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인들이 꺼려하는 획일성과 규칙성을 벗어난 자유로운 형태의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역은 형편과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뀔 수도 있고, 특별한 시설과 장소, 특별한 격식, 시간 등에 구애 받음이 없이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제자훈련

44) 김찬중, 『구역장 핸드북』, 2005, 239쪽 참조.

45) 조영기, 앞의 책, 209~10쪽. 조영기 목사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의 대부분은 구역조직이 잘 된 교회임을 볼 수 있고, 구역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담임목사가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역조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단위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

46) 클레이드 레이드,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전요섭 역, 쿰란, 1996, 15쪽, 재인용.

47) 이영춘, 앞의 논문, 19~21쪽 참조.

1) 사랑의 교회 현황과 제자훈련의 의미

한국교회가 가장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교회는 과연 어디일까. 그 곳은 바로 서울 서초에 자리한 사랑의 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는 옥한흠 목사가 1978년 강남 은평교회란 이름으로 첫 출발한 12명의 교인과 함께 창립예배를 보았으며, 3년 후 사랑의 교회로 개명하였다. 현재 등록교도 6만 여명, 출석교도 3만 여명(어린이 5000명, 청년대학생 8천~1만 명)인 대형교회로써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이다. 이 사랑의 교회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할 수 없다는 원리를 가장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 증거로 1986년부터 2004년 까지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인 “평신도를 깨운다”를 이수한 목회자는 국내 목회자 9,521명, 재미목회자 869명, 캐나다 목회자 50명, 호주목회자 61명, 일본 목회자 521명, 대만 목회자 118명, 그 외 40여 개국 목회자 268명을 합쳐 총 11,408이라는 숫자를 들 수 있다⁴⁸⁾. 그렇다면 왜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의 교회를 다녀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과 제자훈련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럼 여기서 제자훈련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제자의 의미를 알아보자. 구약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 보존할 목적으로 사명을 부여한 자⁴⁹⁾를 제자라 하였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지혜와 인격과 삶을 배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나타내고 예수와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제자라고 한다⁵⁰⁾. 또한 제자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배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헌신하는 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여 재생산 하는 사람들을 의미 한다⁵¹⁾. 이를 종합해 보면 제자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재생산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⁵²⁾이다.

위에서 알아본 제자의 의미를 토대로 제자훈련에 대해 알아보자.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고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작업을 말한다⁵³⁾. 이 작업은 단순히 성경공부나 교리공부 또는 신학적 지식 터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성숙해지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 다른 새 신자를 재생산하는 위치에 이르도록 하는 훈련⁵⁴⁾이다.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는 목회적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 하면서 제자훈련의 의미를 크게

48)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76-7쪽 참조. 제자훈련으로써 지금의 사랑의 교회를 이룩한 옥한흠 목사는 오정현 목사에게 교회의 책임을 넘겨주고 퇴임한 상태다. 옥모사는 기독교의 여러 기관에서 차세대 한국 교회 지도자는 누구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언제나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명한 목사이다.

49) 이성호,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제자훈련의 연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22쪽.

50) 이성호, 위의 논문, 22~3쪽 참조.

51) 오선택, 『제자훈련의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9, 7~8쪽.

52) 정학봉 역,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요단출판사, 1989, 26쪽.

53) 정학봉 역, 위의 책, 27쪽.

54) 이성호, 위의 논문, 24쪽.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첫째, 제자훈련이란 평신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지도하는 교역자나 훈련을 받는 평신도가 다 같이 동참하는 일종의 영적 몸부림으로서 사람을 바꾸는 훈련이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며, 평신도를 복음의 전파자로, 진리의 교사로, 사랑의 치료자로 헌신하게 하게 과정이다⁵⁵⁾. 이런 과정을 통해 평신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비전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다. 즉, 잠자고 있는 평신도를 훈련과 교육으로 철저히 무장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다.

2) 제자훈련의 중요성

한국 교회 통계에 거품이 너무 많다. 또한 예수를 닮아 살려고 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단순히 천당에 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⁵⁶⁾. 또한 교회 자체가 대형화됨으로써 수많은 교인에게 예수의 참 가르침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켜 가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옥한흠 목사는 구역예배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끝나는 피동적인 방식은 단순히 교인을 관리하는 것 밖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⁵⁷⁾. 교회성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건물 크고, 신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제자훈련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양육과 훈련되지 않은 평신도들은 영적 어린 아이로 남아 편당을 가르치는 암적 존재로서 다른 지체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복음 사역의 방해자로 전락하는 근원이 될 수도 있다⁵⁸⁾. 이런 복음 사역의 방해 요소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교회 복음 활동을 내실화하게 하는데 제자훈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앞서 밝히 제자훈련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길이며, 예수의 참 제자로서 복음전파의 사역자로서 키우고 활용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내실 있는 교회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훈련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자훈련의 내용

사랑의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자훈련의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그룹 훈련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 신자 교육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 왜냐하면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를 참된 신자가 되게 하기

55)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2007, 192~5쪽.

56)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82~3쪽.

57) 이근미, 위의 책, 88쪽.

58) 배창돈,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예찬사, 1993, 7쪽.

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녀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 다 결실을 못하고 떨어지는 자가 많은 것은 교회의 책임이다.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다. 새 신자는 수준 높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 보다는 설교 구경만 하고 졸다가 그 영혼은 굶어서 돌아가는 것이다⁵⁹⁾. 사랑의 교회는 이처럼 새 신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새 신자 교육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⁶⁰⁾. 새 가족 모임은 크게 찬양과 율동(20분), 환영과 기도(10분), 성경교육(60분), 만남과 교제의 시간(20분)으로 진행된다. 5주 동안의 교육내용은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 제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제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교육하고, 제5과에서는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⁶¹⁾. 이렇게 새 가족 모임에서 5주의 교육을 마치면 수료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인 다락방으로 연결시킨다.

다락방은 순장이 인도하는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전도와 양육과 사랑의 교제를 힘쓰는 소그룹 단위의 모임이다. 순장을 포함한 열 명 내외로 모이는 다락방은 작은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순장은 작은 목사요, 순원은 그에게 맡겨진 어린양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이 다락방을 통하여 변함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한다. 그래서 다락방은 가장 기본적인 사역을 하는 장이며⁶²⁾, 다양한 형태의 다락방이 운영되고 있다. 사랑의 교회 다락방 모임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다락방을 인도하는 작은 목사로 불리는 순장의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는 것이다. 처음 1년은 10명이 한조가 되어 교역자 1명으로부터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되고, 다음 1년은 20명이 한조가 1명의 교역자로부터 철저히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교육 시간은 매주 1회 3시간이며, 담당 교역자는 다른 팀은 말하지 않고 오직 한 팀만 집중적으로 지도한다⁶³⁾. 둘째, 성경공부를 특이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존 교회의 구역예배가 일방통행식이라면 사랑의교회 다락방 모임은 쌍방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⁶⁴⁾. 잘 훈련된 순장들과 순원들이 대화식으로 꾸며진 교재를 통해 교육을 하는데, 단순히 암기하고 이해하는 성경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생활에 적용하게 하여 예수의 인격을 닮아 가고, 예수의 삶이 되도록 교육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다락방은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혼부부, 교사 등을 위한 특화된 다락방은 남녀가 함께 운영하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평신도를 깨우는 중요한 과정으로서의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에 대해서 알아보

59) 국제제자훈련원, 「제66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교재」,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2005, 193쪽.

60) 사랑의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등록을 하게되면 등록처에서 담당교역자가 상담을 통하여 재차등록을 확인하여 허수를 줄이고, 그 등록 주간에 교역자의 심방을 실시할 정도로 새신자 교육훈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5주간의 새신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의 어떤 직분도 받을 수 없도록 체계화 되어 있다.

61) 명성훈, 앞의 책, 284-5쪽. 새가족 모임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바로 다락방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전도폭발 교재를 가지고 일대일 양육의 과정을 거쳐 기초 양육과정을 마무리 할 정도로 새가족 모임 내지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62) 옥한흠, 앞의 책, 2007, 322쪽.

63) 이근미, 앞의 책, 85쪽.

64) 이근미, 앞의 책, 87쪽 참조.

자. 다락방 모임의 구성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자훈련반과 사역훈련 반은 그 자격과 성격이 다르다. 제자훈련반은 평신도를 예수처럼 되게 하고 예수처럼 살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역훈련반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의 지도 아래 말씀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⁶⁵⁾. 이 훈련과정은 복음과 교리 생활이 삼위일체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뿐 아니라 목회자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선택된 일정한 사람들을 정예화 시켜 목회자와 함께 분담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도를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제자훈련 반은 단순한 양육의 과정이 아닌 사역을 위한 훈련코스 즉, 사역자를 키우는 목적을 지닌 훈련과정이다. 기간은 1년 과정이며, 자격조건은 다락방에서 6개월 이상 훈련받고, 세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하며 나이는 33세에서 50세까지, 신체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생활이 적정하며, 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등이다⁶⁶⁾. 훈련은 남자반과 여자반 각각 10명씩으로 나누어 주1회 3~4시간 이루어진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터를 다시 한 번 확고히 다져주고 거기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격과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제자훈련 터다지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작은 예수가 되라’의 3권의 책을 교재로 진행한다.

다음 사역훈련반은 제자훈련을 마친 자들을 위한 전문고급반이다. 제자훈련반이 자기 성장과 경건생활의 기초를 중요시 한다면 사역훈련반은 교회론, 성령론, 신구약개론, 그룹 성경공부 인도법, 순장이 되기 위한 과정 등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다. 사역훈련반 역시 기간은 1년 과정이나 좀 특이한 것은 이 과정에서 은사와 리더십이 약한 사람들은 걸러지게 된다는 점이다⁶⁷⁾. 이처럼 제자훈련반 1년과 사역훈련반 1년 도합 2년을 흠 없이 교육 받은 자에 한하여 사랑의 교회 다락방 지도자인 순장의 책임을 허락한다. 평소 옥함흠 목사가 강조했던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훈련할 수 없다는 철학과 훈련의 방침이 철저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사랑의 교회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주요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미래 교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다음 세기의 교회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 이성희 목사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심방 목회에서 교육목회로, 대중목회에서 소그룹 목회로, 주일 교회에서 매일 교회로,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목회자의 권위에서 목회자의 지도력으로, 제자훈련에서 사역훈련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⁶⁸⁾ 는 것을 강조하였다. 한

65) 최규원,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50쪽.

66) 명성훈, 앞의 책, 287쪽. 옥함흠 목사는 제자훈련을 신청할 때는 필히 배우자의 동의를 받게 할 정도로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67) 명성훈, 위의 책, 287쪽. 사역훈련반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동역할 수 있다고 판단된 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훈련생들의 의식을 바꾸고 지도자로서 필요한 이론공부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68) 이성희, 『미래 교회 대예언』, 109~303쪽 참조. 미국 교회의 목사 5000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강하게 무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냐는 설문을 하였다 한다. 그 결과는 거의 100%의 목사들이 평신도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사역의 동역자로 삼는 것이 첫째, 아니면

번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교회 시설을 잘 갖추기 전에 사역의 동역자가 될 평신도를 발굴하여 함께 땀 비전을 만들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손에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평신도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질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이다⁶⁹⁾.

3. 셀 교회 운동

1) 셀 교회란 (셀교회운동이란)

일반적으로 셀이란 생물학적 개념으로 모든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최소의 기본 단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를 기초로 해서 셀 교회에 대해 알아보자. 셀 목회의 최초 연구자인 랄프 네이버는 셀은 비전통적인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셀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장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라 하였다. 데이비드 핀넬은 셀은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구성원 상호간과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화 하는 목적을 위해 소그룹을 이루는 신자들의 유기적인 몸이라 하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초공동체임과 동시에 교회의 기초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셀은 5~15명의 교인들 또는 새 신자, 구도자들로 구성된 교회속의 교회를 말한다⁷⁰⁾. 즉 생명체의 최소단위인 셀이 몸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재생산하고 배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셀 교회이다.

이 셀 교회를 전통 교회와 비교를 통해 그 특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셀 그룹이 있으면 셀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셀이 존재한다고 해서 셀 교회는 아니다. 셀 교회와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이른 바 셀 교회는 교회의 모든 활동, 조직, 자원, 프로그램 등이 셀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며 사실상 셀 그룹 자체가 교회 속의 교회들이며, 셀 리더는 셀에서 목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주일학교, 남녀 전도회, 성가대, 제자훈련, 성경공부, 구역예배 등이 셀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그룹들의 존재이유와 목적은 주일 낮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본질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다⁷¹⁾. 이런 상이점은 셀 교회와 전통교회의 비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전통교회는 청년모임, 찬양모임, 성인모임, 교회학교, 구제활동, 선교, 심방 등의 프로그램 중심의 교

둘째의 급선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는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69)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340쪽.

70)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로사랑, 2005, 32쪽. 조용기 목사는 1978년 자신이 집필한 “성공적인 구역조직”이라는 책 제목에서 셀이라는 용어를 구역조직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한편 최영기 목사는 셀 교회를 개척교회라 정의하면서, 셀 교회는 지역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골고루 하는 교회라고 정의하였다(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두란노, 1999, 70쪽).

71) 노성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셀 교회 운동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8쪽.

회라고 하면 셀 교회는 교인들의 본질적인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사람중심이다. 전통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교회 건물 안에서 실행하는 건물 중심의 교회라고 하면 셀 교회는 교인들은 지역공동체 속으로, 셀 멤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쉽게 좀 더 쉽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 사역하는 공동체중심이다. 전통교회는 ‘오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셀 교회는 ‘가라’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교회가 교회교육에 근거를 두고 조직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면, 셀 교회는 섬기는 사역에 근거를 둔 조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전통교회는 가르치기 위해 조직이 되지만 셀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조직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통교회는 서양 문화를 모방한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고, 복음전도 역시 소극적인 반면에, 셀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섬기는 지도자상과 종으로서의 섬기는 자세로 사역하고, 복음전도도 관계중심의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⁷²⁾.

2) 셀 교회의 구조와 특징

셀 교회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셀 교회는 크게 세 구조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셀과 회중 그리고 축제 예배이다⁷³⁾. 셀은 하나의 유기적 몸, 즉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니기 때문에 셀 교회에서의 셀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셀 속에서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서로 섬김, 복음 전도, 봉사 등과 같은 교회가 가지는 모든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셀은 셀 리더를 중심으로 5~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된다⁷⁴⁾. 회중은 셀 구성원들에게 폭넓은 교제를 위해서 만든 보다 큰 무리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50~1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운영된다. 축제는 교회의 모든 셀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대규모 모임이다. 이런 축제예배의 목적은 모든 회중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것과 지속적인 전도와 헌신, 교인들의 횡적관계성을 경험하게 한다⁷⁵⁾. 이 밖에도 셀 교회에서의 셀을 제외한 모든 여타의 조직이나 구조는 셀들을 세우기 위한 지원체제이다⁷⁶⁾. 이러한 지원체제에는 회중들에게 찬양과 예배의 경험들을 훈련시키는 그룹들, 성경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기관들, 선교 사역이나 전도활동의 기회들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사역그룹들, 봉사와 구제 등과 같은 사역의 개발과 전략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그룹 등이 이에 속한다.

72) 박영철,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도서출판NCD, 2000, 15~26쪽 참조.

73) 셀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섬기고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된 소그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의 유기체이고, 회중은 셀의 사역과 성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또는 동질의 그룹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것이며, 축제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드리기 위한 모든 교인들의 모임이다(박영철, 앞의 책, 28~30쪽).

74) 박영철, 「한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 75쪽. 셀 구성원들은 영적 수준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영적 아비수준이다. 이들은 상당한 영적 성숙에 이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들이다. 둘째, 청년수준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 아이수준의 사람들이다. 새로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또는 상처받은 일로 영적 성장이 멈추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75) 강진문, 『셀 목회와 셀 리더쉽』, 2003, 목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10쪽.

76) 박영철, 위의 책, 76쪽.

한편 셀 교회의 특징⁷⁷⁾으로는 첫째, 셀 교회는 작은 가정 교회라는 점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것처럼 큰 교회 가운데 작은 가정교회라는 것이다. 둘째, 셀 교회는 평신도가 목회하는 평신도 목회의 교회라는 점이다. 전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는 엄연히 교회의 주체이며 교회라는 공동체 그 자체인 것이다. 성직자는 이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⁷⁸⁾. 셋째, 셀 교회는 재생산을 위한 교회라는 점이다. 셀 교회는 교회의 존재목적인 재생산을 위해 존재하며, 그 재생산은 오이코스라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간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7~8명 정도의 친밀한 오이코스를 갖고 있으며, 하나의 오이코스를 통해 또 다른 오이코스를 갖게 되는데 이런 오이코스를 침투해 들어가 재생산을 이루어가는 것이 셀 교회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넷째, 셀 교회는 교인들의 은사활용을 강조하는 교회라는 점이다. 셀 교회는 지체들이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로 서로에게 기여하게 하는 곳이며, 상처받은 영혼을 서로의 사랑으로 싸낼 수 있는 내적치유의 장소라는 것이다⁷⁹⁾.

3) 셀 교회의 진행 내용과 순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교회나 소그룹은 존재한다. 이를테면 구역조직도 있고, 제자 모임반도 있고, 세대별 모임도 있다. 그러나 이런 셀들은 교회의 전체 목회 영역 가운데 단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셀 교회에 있어서 셀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회이다. 이 셀 교회는 예배, 교육, 친교, 전도, 선교 등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사역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셀 교회의 셀 모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구역모임이 교회의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셀 교회의 셀 모임은 환영, 경배와 찬양, 말씀, 사역이라는 4W⁸⁰⁾의 순서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환영의 시간 또는 분위기 조성 시간이다. 원만한 셀 모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간의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환영의 시간은 셀 회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며, 관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셀 모임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다. 이 경배와 찬양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

77) 최석진,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신도들을 위한 셀 목회방안』, 목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2, 38~41쪽.

78)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스토틀목사는 비 성경적인교회, 건강하진 못한 교회를 버스와 비교하고 있다. “버스 안을 들여다보라. 운전자 혼자 신경을 곤두세우며 버스를 운전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들은 뒷자리에 앉아 팔장을 끼고 잠들어 있거나 탄전을 피우고 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지만 건강한 교회 즉, 셀 교회는 평신도들이 뛰는 교회라는 것이다.

79) 최영기는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느긋하게 만나 얘기 나눌 기회가 흔치 않을뿐더러 마음과 마음을 나눌 분위기도 허락되지 않는 것은 교회 본연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나침반, 1996, 27쪽, 재인용).

80) 박홍래, 앞의 책, 45~56쪽 참조. 4W란 Welcome(환영), Worship(경배와 찬양과), Words(말씀), Works(사역)를 말하며, 5W는 4W의 Works를 Withness(증인)와 Works(사역)로 나누어 본 것을 말한다. 한편 셀 모임의 진행을 분위기 조성, 찬양, 말씀, 덕을 세움, 복음 전도, 교제 등의 순으로 하기도 한다.

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한 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경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감을 얻게 한다. 진행시간은 20~30분 정도이다. 이 양시간은 셀 그룹이 거룩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현존을 경험하는 연합적인 예배의 시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요청해야 한다⁸¹⁾. 셋째, 말씀의 시간이다. 말씀의 시간은 구역 예배에서 다시 한 번 설교를 하는 것과는 달리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 주 담임목사의 설교말씀을 기초로 하여 자신들의 삶에 비추어 대화를 나눈다. 한주 동안에 자신들에게 있었던 영적 깨달음이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실패한 경험 등 회원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나눔이 이루어진다. 진행 시간은 40분 정도인데, 이 때 셀 리더는 말을 적게 하고, 주일 동안 말씀을 회원들의 삶속에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를 진솔하게 나누게 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넷째, 사역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현안과 셀 회원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 등을 한다. 보통 사역시간은 20분 정도로서 비전을 나누고, 전도를 계획하며, 교회와 각 셀 회원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 등⁸²⁾을 갖게 된다.

4)<셀 교회가 중요시 되는 이유들>

전통적인 대그룹형의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장도 느리게 진행된다. 그 이유는 소수의 리더들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하다. 또한 성도들의 구석구석에 있는 영적 필요를 그 때마다 시기적절하게 발견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풍요속의 빈곤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교회사역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많은 인적 자원을 썩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교회에는 소수의 주인과 다수의 객이 존재하게 되어 교회 본연의 본질성 내지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교회성장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교회 본래의 역할과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셀 교회가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셀 교회가 중요시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자. 첫째, 셀 교회의 모델은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사역원리라는 점이다. 셀은 원천적으로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 낸 현대적 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와 제자의 셀, 초대 교회의 셀 그룹, 바울 사도의 팀 전도사역에 이르기까지 셀 그룹은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다. 셀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사역의 성공 원리⁸³⁾이기에 중요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셀 교회 모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하기 때문이

81) 박영철, 앞의 책, 112~3쪽.

82)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는 교회의 비전과 전략, 셀의 비전과 목표(교회와 전도의 성장과 분가), 셀 구성원들의 개인적 비전에 대해 논의를 한다. 전도 계획시간에는 각자의 오이코스 안의 불신자를 찾아내고, 그 불신자와의 접촉 및 관계 형성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서로 공유하며, 불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효과적 전도를 위해 셀 구성원들을 훈련시킨다. 중보기도 시간에는 교회가 제시하는 기도 제목과 셀 모임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 특별한 요청을 받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능력과 치유와 돌봄이 되도록 하고 있다.

83) 강진문, 『셀 목회와 셀 리더십』,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2003, 23쪽.

다⁸⁴⁾. 왜 셀 교회에서는 유기체적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실질적인 사랑의 돌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모여 있는 곳에서는 각자의 삶을 서로 돌보며 책임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8~12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셀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서의 셀 교회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개인적,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셀 그룹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필요, 친교와 격려에 대한 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과 용기의 필요, 사랑을 주고받거나 하는 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하는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대인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기적인 인간관계, 경쟁관계, 개인주의가 팽배한 각박한 사회 속에서 셀 그룹은 지속적인 관계를 제공하고, 외로움을 치유하며,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⁵⁾. 넷째, 셀 교회는 복음 전도의 통로로써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⁸⁶⁾. 셀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아파트, 직장, 이웃 등 지역사회 전역에 걸쳐 위치하여 주위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각 셀 멤버들의 삶의 영향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들에 맞게 복음을 전할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고정화된 교회에서의 복음 전도 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V. 기독교 소그룹을 통해서 본 교화단 활성화의 과제

1. 교화단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교화의 패러다임 전환

많은 미래 교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다음 세기의 교회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 또한 21세기 한국 교회가 심방목회에서 교육목회로, 대중목회에서 소그룹 목회로, 주일 교회에서 매일 교회로, 오는 교회에서 가는 교회로,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목회자의 권위에서 목회자의 지도력으로, 제자훈련에서 사역훈련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⁸⁷⁾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임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의 생각에 완전한 변화가 있는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⁸⁸⁾고 주장한다. 외적으로 셀 목회의 조직이나 구조를 교회에 적용하여 조직을 바꾼

84) 김현수, 『현대 교회 갱신을 위한 셀 교회 패러다임』, 2004, 감리교 신학대학원, 32쪽.

85) 박재영, 『셀을 통한 교회 개척과 성장 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41쪽. 명성훈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나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배에만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셀에서는 상호 영향, 상호 섬김, 상호 치유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므로 현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인주의적 영성문제는 셀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86) 김현수, 위의 논문, 33쪽.

87) 이성희, 『미래 교회 대예언』, 109~303쪽 참조.

88) 박홍래, 앞의 책, 57쪽.

다고 하더라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결코 셀 목회가 전통 교회에 접목될 수 없고, 성공적인 번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불교 교화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다. 원불교 교화도 기존 패턴을 유지한 채 교화단 조직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화가 살아난다고 보지 않는다. 교당의 모든 일을 교무가 처리해야만 하는 교역자 중심의 교화에서 재가교역자를 활용한 출가 재가 중심의 교화로 바뀌어야 하고, 교무 설교위주의 법회에서 교화단을 중심한 법회와 훈련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기존의 교당 조직인 요인회, 운영위원회, 봉공회 등 모든 조직들을 교화단 조직으로 흡수하여 조직의 일원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화성장 내지는 교화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교화단에 대한 교화자의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마인드로 교당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고 합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교역자의 의식변화

앞에서 살펴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구역조직과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셀 교회운동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질적 성장을 통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조영기 목사는 구역조직은 교회를 건설하고 튼튼하게 세우는 뿌리이며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교회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절대적인 조직⁸⁹⁾이라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세계최대의 교회를 일구어 낸 것이다. 옥한흠 목사도 교회의 성장이 건물크기나 신도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그 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의 사랑의 교회를 이룩해 왔던 것이다.

우리를 되돌아보자. 일찍이 대중사께서는 서품 6장에서 교화단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으로 몇 억만의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다. 또한 정산종사도 각 교당에서 교화단을 강화하면 사반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하시었고, 대산종사는 교화단법이 인류를 활발로 만들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물샐 틈 없는 법이라 하셨으며, 좌산상사는 교화단이 자신과 생령을 구제할 반야용선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하셨으며, 경산 종법사는 교화단은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조직이라고 하셨다. 이처럼 대중사님이 하 역대 스승님들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이 교화단 조직에 대해 우리 교역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교화단 조직을 교화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교역자로서 교화철학으로 삼아서 교화에 승부를 걸겠다는 비전과 의지 그리고 신념이 절실하다 하겠다. 결국 교화단이 교화성장과 원불교 존재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역자의 의식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89) 조영기, 앞의 책, 209~10쪽. 조영기 목사는 세계적으로 볼 때 성공한 교회의 대부분은 구역조직이 잘 된 교회임을 볼 수 있고, 구역조직이 잘 되어 있으면 담임목사가 바뀌어도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역조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단위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다.

3) 재가교역자의 양성과 적극 활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동역자로 보고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하였다. 그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부흥을 꿈꾸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근본적으로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기 혼자 뛰고 있다는 점이었다. 평신도들을 목회의 동반자로서 동역자 내지는 작은 목사로 바라보고 그들을 바로 세워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교회 시설을 잘 갖추기 전에 사역의 동역자가 될 평신도를 발굴하여 함께 땀 비전을 만들고 공유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의 손에서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된 평신도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변질되지 않고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⁰⁾. 조영기 목사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교회의 공통점은 조직이 살아 있고, 그 조직 속에는 평신도의 역동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중 목사도 평신도를 활용한 조직이 있는 교회는 평신도들이 지도력을 배우고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우리 교단은 어떠한가? 국내의 500여개 교당을 살펴볼 때 대개 교역자1인 또는 2인이 모든 것을 다 해가는 상황이다. 이런 교무 중심의 교회시스템으로는 교화단이라는 조직이 크게 살아날 수 없고, 결국 교화성장을 이끌어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좌산 상사는 재가교도를 현장 교화의 주역으로⁹¹⁾ 내세울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다행히도 원기 92년도 중앙교의회 재가의원들이 결의 하고 건의 한 내용 중에 재가 교역자를 적극 양성하고 활용해 달라⁹²⁾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 교단은 이런 시점을 놓치지 말고 교단적 차원에서 재가교도를 교화의 동역자로 인식하고, 교역을 위한 적절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재가교도를 교화자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본다.

4) 단장 중앙의 철저한 교육 훈련

교화단 조직에 있어 리더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단장 중앙의 리더십 또는 역할 정도에 따라 그 교화단 활동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화단의 리더인 단장 중앙의 역할은 그 교화단의 성격과 활동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⁹³⁾. 일찍이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런 리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제자훈련의 과정을 통해 동역자

90) 옥한흠,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340쪽.

91) 수위단 사무처, 『교단 교화 경륜』, 원기85년, 39쪽. 좌산상사는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내세워 현장교화를 크게 살리고, 재가 교도를 주인 되게 하며, 재가들의 역량을 길러주고 그 역량을 활용하여 재가들을 모두 교화자로 만들자고 하였다. 또한 출가들의 인사이동시 공백을 없애고, 재가들이 경영하는 일터마다, 직장마다, 마을마다 교화장을 만들며, 재가들 가정마다 교당화를 이루자고 하였다.

92) 제20회 중앙교의회에서 재가의원들이 결의하고 건의한 내용, 원기 92.11.4.

93) 오도철, 앞의 논문, 467-8쪽 참조. 실지 수 많은 교화단이 똑 같은 교화단 운영 지침으로 교화단을 이끌어 가지만 그 단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단장 중앙의 마인드와 역할에 따라 활동 내용이 다르게 나타남을 직간접으로 확인하게 된다.

로서의 작은 목사를 키워왔었고, 그들이 지금의 사랑의 교회를 성장시켜왔고 지금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실지로 사랑의 교회에서는 우리 교화단의 단장과 같은 위치의 리더인 순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제자훈련과정 1년, 사역훈련과정 1년 도합 2년 이상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다락방 리더인 순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교화단 단장은 얼마 동안 어떤 교육훈련을 받고 임명이 되는 것일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원불교에 입교해서 교화단 조직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33.8%에 그치고 있어 교화단 대한 교육이나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⁴⁾.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재가지도자 즉 단장 중앙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프로그램의 연구와 보급이 절실함을 밝히면서⁹⁵⁾ 교화단 운영이 교무 중심에서 단장 중앙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단장 중앙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원기 92년 중앙교의회 재가위원들의 결의 및 건의사항 속에 단장 중앙 역량을 강화해 가자는 조항이 있었다. 많은 미래 교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다음 세기의 교회 생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 놓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단장 중앙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단장 중앙의 임명조건과 교육훈련기간, 교육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시행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교화단의 리더가 되게 해야 한다고 본다.

5) 교화단 전문 종합훈련원을 운영하자

사랑의 교회가 질적으로 우수한 신도 6만여 명이라는 숫자와 함께 한국을 비롯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이요 다른 하나는 그 목회철학에 근거하여 평신도를 교육 훈련하여 사역의 동역자로 만드는 제자훈련의 시스템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의 교회가 유명해진 두 가지 이유 이면에는 국제제자훈련원이라는 커다란 종합시스템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제자훈련원은 제자훈련을 소개하고 보급할 뿐 만 아니라 지역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목회전반의 문제들에 대한 진단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등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 제자훈련 지도자 컨벤션, 제자훈련 체험학교, 사역훈련 지도자 컨설팅, 목회 컨설팅, 동역자 네트워크, 후속세미나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4년까지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인 “평신도를 깨운다”를 이수한 목회자는 국내 목회자 9,521명, 재미목회자 869명, 캐나다 목회자 50명, 호주목회자 61명, 일본 목회자 521명, 대만 목회자 118명, 그 외 40여 개국 목회자 268명을 합쳐 총 11,408이라는 숫자⁹⁶⁾에 이를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타깝게도 원불교에는 아직 교화단으로 성공한 교당이나 교화단 교화를 위한 이론적, 경험적 차원의 뒷받침을 해주는 교육 훈련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제라도

94) 최원식, 『원불교교화단 연구』, 원불교대학원대학교석사논문, 2008, 15쪽.

95) 박혜성, 『재가교화단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0, 49-51쪽.

96)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76-7쪽 참조.

교화단을 축으로 한 교화성장과 원불교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 시스템으로서의 교화단 전문 종합훈련원을 적극적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자. 기본적으로는 각 교당이 교화단 교육훈련의 센터가 되어야 하며, 각 교당의 교역자는 교화단에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전문가 내지는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각각의 교당과 교역자들에게 교화단 교화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교화단 बैं크라인이 필요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교당에게 교화정보를 제공해주고, 필요에 따라 다양한 대상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을 통한 원불교 교화성장을 주도해가는 명실상부한 교화단 전문 종합 훈련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6)예비교역자의 교육훈련 강화

대종사님 이하 역대 스승님들이 십인일단의 교화단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예비교역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미비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가 ‘철저히 훈련 받지 아니한 자는 훈련시킬 수 없다’라는 목회철학 하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하여 작은 목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원불교가 당면한 교화단의 문제를 극복하고 획기적인 교화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단 전 구성원들이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 교단의 미래이자 희망으로서 성불제 중 제생의세의 거룩한 서원의 씨앗을 가꾸고 있는 예비교역자들에게 교화단의 중요성을 가슴에 심어주고, 더 나아가 실전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 교역자 교육과정에서 부터 정식으로 교화단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교화단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기본적으로 교화단에 대한 이해, 이념과 조직 원리, 그리고 조직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공동체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학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화단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는 등 한 단계 발전되고 미래 지향적인 조직적 안목을 가짐으로써 조직 교화가 구호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화단에 대한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⁹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화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마인드가 구축이 되고 수많은 실습의 과정을 통해 체질화가 되었을 때 교화 현장이라는 실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화단에 대한 교원들의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고, 각 교육기관은 교육, 생활, 행사 등 모든 것을 교화단 조직을 축으로 소화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리라 본다.

97) 장진영, 『원불교대학원대학교 교화단 운영에 대한 연구』,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2쪽. 좌산 상사는 『예비교역자가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에서 교화단에 대한 전반적인 언급을 하면서 예비교역자 시절에 교화단 관리능력을 확실히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VI.나오는 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서품 6장에서 교화단은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빠른 방법이며, 한 사람이 아홉 사람에게만 공력을 들이면 되는 아주 간이한 조직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다. 이러한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산종사로부터 시작하여 현 경산 종법사에 이르기 까지 역대 스승님들은 교화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현장을 살펴보면 스승님들이 중요시 하고 강조했던 바와는 달리 교화단을 통한 교화가 크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교화단 조직이 교화현장의 중심에 서서 교화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런 문제에 초점을 두고 기독교의 소그룹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화단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내지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교화단의 이념과 원리부분에 있어서 교화단의 이념은 교화와 통치에 있음을 알아 보았다. 또한 교화단의 원리는 한 사람이 아홉 사람에게만 공력을 들이대어 교화하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며, 우주의 원리에 바탕한 조직임도 살펴보았다. 다음은 교화단의 중요성 부분으로 대종사 이하 역대 스승들의 법문을 통해 십인일단의 단 제도가 교단의 통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하는 교화활동의 핵심 원리이자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도 알아보았다. 특히 경산 종법사는 교화단은 자신과 교단과 세계를 구원하는 핵심조직이다 라는 명료한 정의를 내리면서 교화단 활동을 강화시켜 교단을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이끌고, 교화단 활동을 심화시켜 수행심과 봉공정신을 크게 장양시키며, 교화단 활동을 활성화시켜 화기로운 교단으로 가꾸어 갈 것⁹⁸⁾을 강조하였다.

이어 기독교 소그룹에 대한 접근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한 소그룹의 역사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고, 기독교에서의 소그룹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기독교에서 소그룹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로는 소그룹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 명령을 충실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기초 공동체이고, 소그룹이 교회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소그룹이 교회의 리더쉽을 극대화 즉,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목회자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낼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교회가 진정 질적 양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그룹이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독교 소그룹 운영의 사례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구역조직과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셀 교회운동 등에 대한 사례 소개를 통해 소그룹이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밝힘으로서 원불교 교화단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독교 소그룹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시켜 원불교 교화단 활성화의 과제로 교화의 패러다임 전환, 교역자의 의식 변화, 재가교역자에 대한 양성과 적극 활용, 단장 중양의 철저한 교육, 예비교역자자의 교육훈련 강화, 교화단 전문 종합 훈련원 운영 등을 제시해 보았다. 교화단은 새 시대에 맞는 최선의, 최상의, 최후의 다단계 네트워크 교화조직이며, 원불

98) 경산 종법사, 「교화단 운영 방침」, 원기92년 9월 18일 법문.

교 교화의 희망이자 비전이라고 생각 한다⁹⁹⁾. 비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교화단을 통한 교화가 힘들고 좀 더딜지 몰라도 대중사께서 총서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일체생령을 낙원세계로 인도하고, 원만한 종교 또는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피하거나 적당히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언급하였지만 제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교역자들의 의식과 태도라고 본다. 모든 교역자들이 교화단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교화에 승부수를 띄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교화단 활성화의 과제들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연구 개발되기를 염원한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소그룹을 소개한 본의는 기독교를 표준삼아 그대로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원불교 교화단을 깨워주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99) 최경도, 『교당 교화 프로그램 개발』, 일원문화연구재단 연구발표회, 2005, 28쪽.

<참고문헌>

- 원불교 정화사편, 『원불교 전서』, 원불교출판사, 1977.
- 원불교 정화사편, 『원불교교고충간』, 원불교출판사, 1994.
- 원불교 교정원 교화부, 『원기80년 교화단 지침서』, 1994.
- 강진문, 『셀 목회와 셀 리더쉽』, 목원대학교신학대학원, 2003.
- 김찬중, 『구역장 핸드북』, 2005.
- 김현수, 『현대 교회 갱신을 위한 셀 교회 패러다임』,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노성민, 『건강한 교회를 위한 셀교회 운동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 나관호, 『소그룹 운동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세대학교대학원, 2004.
- 박원섭, 『구역운영지침』, 한국문서 선교회, 1982.
- 박영철,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2000.
- 박종훈.정종현 역, 『열린 소그룹 닫힌 소그룹』, 교회성장연구소, 2003.
- 박재영, 『셀을 통한 교회 개척과 성장 방안』,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로사랑, 2005.
- 박혜성, 『재가교화단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00.
- 배창돈, 『나는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 예찬사, 1993.
- 백준흠, 『원불교 훈련법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 26집, 2002.
- 백준흠, 『원불교 교화단에 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문화 34집, 2006.
- 백준흠, 『원불교 교당구조 개선 방안 연구』, 원불교사상과 문화 40집, 2008.
- 순복음교육연구소, 『작은목자론』, 서울서적, 1987.
- 신재구 역,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1986.
- 심진우, 『교회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리더쉽』, 성결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논문.
- 안재은, 『소그룹과 교회성장』, 충신대학교 출판부, 2002.
- 오도철, 「교화단 활동을 통한 교화 발전」, 『원불교 사상』 제19집, 원불교사상 연구원, 1995.
- 유향미, 『교회 구역 소그룹을 통한 목회적 돌봄』,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 이야기』, 월간조선사, 2005.
- 이경희, 『소그룹을 통한 교회사역의 활성화 연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2003.

- 이대현, 『소그룹을 통한 어린이 사역』, 목원대학교대학원, 2006.
- 이수민 역, 『그룹 다이내믹스 입문』, 대한기독교교육협의회, 1982.
- 이성은, 「조직제도 변천사」, 『원불교 칠십년 정신사』, 성업봉찬회, 원불교 출판사, 1989.
- 이성호, 『교회성장을 위한 평신도 제자훈련의 연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2005.
- 이영춘, 『역동적 구역사역을 통한 한국 교회 침체 극복 방안』,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오선태, 『제자훈련의 방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침례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9.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제자훈련원, 2007.
- 장진영,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교화단 운영에 대한 연구』,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교화연구보고서, 2003.
- 전요섭 역,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쿤란, 1996.
- 정진우 역, 『셀목회지침서』, 2000.
- 정학봉 역,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요단출판사, 1989.
- 최광철, 『교화단 실태 조사 및 제언』,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교화 연구 보고서, 2003.
- 최규원, 『제자훈련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 최대석 역, 『기독교교육 연구 시리즈』,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최정성, 『구역활동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박사논문, 1987.